

도시주부의 지출행동유형 연구*

Expenditure Behavior types of Urban Housewives

서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조영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 아동학과
교수 이기영

Dept. of Home Management, Seowon University
Assistant Prof. : Young Hee, Cho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 : Ki Young, Lee

〈목 차〉

- | | |
|------------|---------------|
| I. 문제 제기 | IV. 분석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expenditure behaviors of housewives into some types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types focusing on diverse expenditure behaviors of urban households. In this study, it is assumed that the expenditure behaviors are classified by three factors -①the orientation of money saving, ②the orientation of time saving, and ③the orientation of others. The present study suggests following three questions. (1) Can the expenditure behaviors of urban housewives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orientation of money saving, the orientation of time saving, and the orientation of others? (2) What distinctions exist among the types? (3) Which variables are useful in classifying the expenditure behaviors?

For empirical analysis, the data of the study was collected from 650 housewives living in Seoul. The statistical methods adopted for data analysis are frequency, percentage, mean,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임.

oneway ANOVA, Duncun's multiple range test and discriminant analysis.

As the major findings, 4 types were extrac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each dimensions, the names for the each type were given as "the type of attaching importance to money saving", "the type of attaching importance to time and appearance", "the type of attaching importance to money saving and time", "the type of attaching importance to money saving and appearance".

In "The type of attaching importance to money saving" the significant portion of housewives have high school degrees, and compared with other types, this type includes more husbands having sales and service job. 55% of housewives of "The type of attaching importance to time and appearance" have graduate or higher degrees. The significant part of earned incomes range from 3 million won to 5 million won. The rate of housewives employed in the professional job is higher than other types. In "The type of attaching importance to money saving and time" the rate of the employment of housewives in this type is the highest among the types. In "The type of attaching importance to money saving and appearance" the significant portion of housewives have graduate degrees. In the jobs of the spouses, the management job is major. The consciousness of belonging to the middle class is higher than other types. In this type, the level of education is high but that of income is not.

The result of the discriminant analysis says that the earned income and the consciousness of belonging to a class are the most critical variables to classify the expenditure behaviors into 4 types. The accuracy of the classification of the discriminating equation composed of these variables is 47.5%. The accuracy is improved by 10%.

I. 서론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로 과거 근검절약만을 강조하던 가계지출방식은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되면서 주부들은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위한 의사결정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가족의 지출을 둘러싼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우선 소득이 증가되면서 대부분의 가계가 중산층의 생활을 지향하고 표준화된 가계지출 형태를 추구하는 경향과 또한 1980년대 중반 이후 기혼여성 취업의 급격한 증가로 가사노동과 직업의 병행에 따른 시간부족을 외식이나 가사노동자의 고용 등과 같은 변화는 오늘날 가계지출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물가 및 지가 상승, 자녀의 교육비 부담 등도 지

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가계지출관리에 대한 연구 측면에서 다양한 가계관리 형태를 예측하게 한다.

결국 주부들은 지출과 관련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지출의 우선권과 배분정도를 결정하게 되고, 그 결과는 개별가계의 경제적 복지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내용이나 국민후생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부들의 지출행동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그 요인들의 고려형태는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다양화되는 가계지출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지출행동에서 고려되는 요인을 발견하고, 그 요인들을 토대로 지출행동을 유형화하며, 각 지출행동유형의 특성을 살펴보고, 각

지출행동의 유형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변수가 무엇 인지를 밝힘으로써 가계경제의 진단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지출행동의 개념

가계지출행동은 가족의 욕구충족을 위해 가계소득을 사용하는 활동으로 오늘날 도시가계에서 주부들이 수행하는 역할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되고 있다. 지출행동은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제한된 소득으로 최대의 만족을 위해 선택하는 합리적인 행동으로 가정됨과 동시에 사회적인 가치나 규범 등을 반영하는 데서 사회적 행동으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또한 어느 일정기간 지속성을 가짐으로써 가족의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련을 갖으며, 특히 가족의 가치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출행동을 유형화해 본다면 지출행동유형은 항상성을 전제로 하는 생활양식의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출행동 유형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일반적으로 행동의 유형화는 행동을 범주화하여 파악함으로써 행동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 지출행동을 유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데 최근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은 가족이 추구하는 지출행동의 구체적인 방향에 영향을 줌으로써 지출행동 유형화에 필요한 요인의 도출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경제성장으로 여러 사회계층에 속한 가계의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르면서 소비생활을 통한 계층의 유지 및 상승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가계 지출구조를 새로이 개편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용품의 상품화는 소비내용의 표준화와 생활수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 보다 상위계층의 생활을 모방하고자 하는 계층 상승욕구가 과도한 소비를 통해 표출되게끔 조건지워지고 있다. 도시인들은 '중산층'의 소비수준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차나 고가의 내구재를 구입하고, 은행대출과 신용카

드를 이용함으로써 항상적 채무구조에 들어가기도 한다(다쓰오 나루세,1994). 이러한 현상, 즉 타인들의 지출행동 혹은 타인들의 평가를 중시하는 지출행동의 경향은 자원관리의 목표를 효율성이나 보존에 두기보다는 만족감의 증대에 두는 자원에 대한 가치의 변화에 뒷받침되어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취업률도 가계의 지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취업주부들은 시간의 기회비용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시간대체를 위해 기꺼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니콜스와 폭스(Nickols & Fox,1983)는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시간구매(time-buying)' 또는 '시간절약(time-saving)' 전략의 사용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아이돌보기, 외식, 종이기저귀를 더 구매함으로써 '시간구매'전략을 이용하고 있으며, 집에서의 식사를 적게 하여 가계생산시간을 줄이며, 여가시간을 줄임으로써 '시간절약'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같은 시간의 희소성의 문제는 비단 취업주부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여성의 확대된 역할은 시간제약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문옥표(1992)는 우리나라 도시 중산층의 주부들의 생활에 관한 연구에서 남편의 생활이 주로 남편 자신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이 주부의 영역으로 흡수된다고 하였다. 그들은 주어진 소득으로 가계를 꾸려가기 위해 엄청난 양의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교육제도, 주택정책, 물품유통구조, 물가정책, 금융관리가 가계활동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산업화 및 도시화와 더불어 생활필수품의 많은 부분을 시장에 의존하게 되면서 도시가계는 물가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고, 도시의 지대와 지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도시가계를 압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이밖에도 육아비와 교육비의 부담이 도시가계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부는 가족의 유지를 위해 소득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한 알뜰하게 지출하고자 하

는 행동을 요구받게 된다. 물론 자원의 제한된 상황에서는 늘 금전절약을 피하는 지출이 요구되어 왔지만 오늘날과 같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시가계는 사회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속에서 복잡한 지출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의 맥락에서 가계가 추구하는 지출행동경향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즉 가능한 지출을 줄이고 절약을 추구하는 금전절약지향, 경제적으로 비용이 들더라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 기꺼이 지출로 대체하는 시간절약지향, 타인의 이목을 증시하는 타인지향의 지출행동의 세 경향이다. 그런데 개별가계의 특성에 따라 세 경향의 수준이 상이할 것이므로 각 지출행동경향에 대한 조합(combination)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출행동의 경향을 지출행동유형을 구성하는 지출행동의 차원으로 하여 세 차원의 조합을 하나의 지출행동유형으로 보고 지출행동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3. 지출행동유형의 가설적 모형

지출행동의 세 차원의 선택·조합에 따라 이론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출행동유형은 금전절약지향, 시간절약지향, 타인지향의 세 요인의 점수를 표준화 하여 각 요인을 지향하는 경우(+부호)와 지향하지 않는 경우(-부호)로 이분화하면 세 요인에 의해 <표 2-1>에서와 같이 8 가지 지출행동유형을 가설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시가계의 재정관리와 관련된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세 요인에서 모두 -부호를 나타내는 경우는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도시주부의 지출행동이 금전절약지향, 시간절약지향, 타인 지향의 세 차원에 의해 유형화 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표 2-1> 지출행동유형의 가설적 모형

차원 유형	금전절약지향	시간절약지향	타인지향
I	+	+	+
II	+	+	-
III	+	-	+
IV	+	-	-
V	-	+	+
VI	-	+	-
VII	-	-	+
VIII	-	-	-

* +, - 의 부호는 금전절약지향, 시간절약지향, 타인지향의 세 요인의 점수를 표준화 하여 + 부호는 각각의 요인에서 그 행동을 지향하는 경우를, - 부호는 그 행동을 지향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도시주부의 지출행동은 금전절약지향, 시간절약지향, 타인지향의 세 차원에 의해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연구문제 2. 유형화된 집단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심리적 특성 및 지출행동특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도시주부의 지출행동유형을 분류하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변수는 무엇인가?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로, 질문지는 지출행동유형 척도와 지출행동유형 관련 변수로 구성하였다.

지출행동유형의 척도는 금전절약지향 10문항, 시간절약지향 7문항, 타인지향 8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부의 지출행동유형과 관련있는 요인으로는 사회 인구학적 변수, 경제적 변수, 심리적 변수, 그리고 지출행동특성 변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회 인구학적 변수로는 주부의 연령,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직업적 지위, 남편의 교육수준, 남편

의 직업적 지위, 자녀수, 계층귀속의식을 포함시켰고, 경제적 변수로는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가계순자산, 주택소유형태, 경제적 복지감으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변수로는 내외통제성 및 재정관리만족도를 포함시켰으며, 지출행동특성 변수로는 신용카드사용 여부, 외식빈도, 가정기기보유수, 외제가정기기보유수로 하였다. 그리고 지출행동유형, 내외통제성, 재정관리만족도, 경제적복지감의 네 척도의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정말 그렇다'에 5점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은 서울지역에 거주하며 자녀가 있는 30대-50대의 주부로 하였다. 표집은 한국감정원의 '전국도시지역 토지지가조사표(1989)'의 서울지역을 모집단 목록으로 하여 다단계 층화 할당표집을 하였다.

본조사는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질문지를 재구성하여 표집절계에 따라 1994년 11월 17일부터 12월 9일 까지 이루어졌다. 조사는 대학생 25명을 조사요원으로 하여 총 650부를 배포하였으며, 그 중 630부를 회수하였으나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614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에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통계방법으로는 빈도분포, 백분율, 상관관계, 요인분석, 군집분석, 일원 분산분석, 분할표분석, 판별분석을 적용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의 특성

주부의 연령 분포는 40세 미만의 비율이 42.6%이고, 40~50세 미만의 비율이 39.5%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40.7%로 가장 많고, 고졸이 36.5%, 중졸이 11.9%로 나타났다. 주부의 직업적 지

위의 분포는 취업주부의 비율이 46.5%로 나타났다. 그 중 비전문직이 26.6%, 전문직이 19.9%로 나타나 우리나라 여성의 전문직 취업율¹⁾과 비교할 때 전문직의 비율이 높게 표집되었다. 이것은 주부의 직업적 지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표본 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61.8%로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고졸과 중졸은 각각 24.7%와 5.7%를 차지하고 있다. 남편의 직업적 지위에 있어서는 경영·관리직의 비율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직, 전문 기술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의 분포는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은 남편의 월평균 소득, 주부의 월평균 소득, 기타 가족원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100만원이상-200만원 미만인 36.6%, 200만원 이상-300만원미만이 27.6%로서 조사대상의 약 64%가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의 범주에 속해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의 3분의 1정도가 소득의 원천으로 비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다.

주택의 소유형태에서 자가인 경우가 60.2%였으며,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50.4%, 단독주택이 30.7%, 그외 다른형태가 18.7%로 나타났다.

2. 지출행동 차원의 구성 및 경향

지출행동을 유형화하기 위해 먼저 금전절약지향, 시간절약지향, 타인지향의 세 차원이 서로 다른 차원으로 구별되는지, 또 각 차원은 타당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출행동을 측정된 25문항에 대해 상관관계분석 및 직각 회전방식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의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은 모두 6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6요인은 전체 분산의 57.9%를 설명하였다. 그 중 요인 1을 타인지향 차원(7문항, Cronbach의 $\alpha=.782$)으로, 요인 2를 금전절약지향 차원(5문항, Cronbach의 $\alpha=.701$)으로, 요

1)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취업구조를 보면 1988년의 취업여성은 전체여성의 45.0%이며, 그 중 전문직(전문, 기술, 행정직)의 비율은 6.2%를 차지하고 있다.

인 4를 시간절약지향 차원(3문항, Cronbach의 $\alpha = .634$)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지출행동 차원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시간절약지향과 타인지향 차원은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502)를 나타내었고, 이 두 차원은 금전절약지향과는 부적인 상관관계(시간절약지향은 -.268, 타인지향은 -.244)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세 차원이 지출행동유형의 분리된 하위차원으로 타당함을 의미하며 동시에 지출행동이 다양한 차원으로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각 지출행동 차원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출행동 차원의 점수를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그것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았다.

금전절약지향 차원 평균 점수가 17.21점으로 중간점수인 15점을 약간 상회하는 점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간절약지향 차원을 보면 평균점수가 8.32로 중간점수인 9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타인지향 차원은 평균점수가 17.32로 중간점수인 21점보다 낮게 나타남으로써 시간절약을 위한 대체나 타인의 이목을 중시하는 지출행동 정도가 대체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지출행동의 유형화

1) 유형화 집단의 수 결정

먼저 집단을 유형화 하기 위해 타당한 집단의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 예측 집

단수를 고려하여 8개, 7개, 6개, 5개, 4개 집단으로 유형화시키고, 집단수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그 유용성을 판단하였다. 우선 나타난 각 유형이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유형속에 포함되며(세 차원 모두 -부호를 보이는 유형을 잠정적으로 제외), 지출행동의 유형화의 의미를 희석시키지 않는 정도의 유형의 가 지수를 가지며, 각 유형의 빈도가 유사한 경우를 선택하는 것이다.

먼저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측대로 모든 경우에서 (-,-,-)의 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가설적인 모형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집단수인 8개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 6 유형이 나타났는데, 세 집단의 빈도가 적어 자료의 유실이 불가피하며, 더 우기 두 집단이 동일 유형(-,-,+)으로 나타나 적절한 집단수로 볼 수 없다. 7개 집단, 6개 집단, 5개 집단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유형의 중복 및 자료의 유실 문제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한편 4개 집단으로 유형화 할 경우, 빈도가 고르게 되어 있지는 않으나 빈도수가 극히 적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없으므로 분석에 사용할 때 자료의 유실을 막을 수 있으며, 나타난 네 유형이 다른 집단수의 경우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4개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2) 유형화된 집단간 지출행동 차원의 차이 검증 및 유형의 명칭

지출행동을 네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기 위해 각 하위 차원별 요인점수(factor

<표 4-1> 지출행동유형의 집단수별 빈도 및 표준화된 점수의 부호

집 단	빈도(M,T,O)	집 단	빈도(M,T,O)	집 단	빈도(M,T,O)	집 단	빈도(M,T,O)	집 단	빈도(M,T,O)
1	64 (-,+,-)	1	114 (+,+,-)	1	84 (+,+,+)	1	18 (+,+,-)	1	181 (+,+,-)
2	25 (-,+,+)	2	11 (+,+,+)	2	186 (-,+,-)	2	192 (-,+,-)	2	86 (-,+,+)
3	128 (+,+,-)	3	30 (-,+,+)	3	197 (+,+,-)	3	188 (+,+,-)	3	83 (+,+,-)
4	122 (-,+,-)	4	108 (-,+,-)	4	30 (-,+,+)	4	62 (-,+,+)	4	240 (+,+,-)
5	23 (+,+,+)	5	37 (+,+,-)	5	10 (+,+,-)	5	130 (-,+,-)		
6	96 (+,+,-)	6	140 (+,+,-)	6	83 (-,+,-)		590		590
7	1 (-,+,-)	7	150 (-,+,-)		590				
8	131 (+,+,-)		590						
	590								

score)를 사용하여 일원분산분석과 DMR-test를 하였다(표 4-2 참조).

먼저 일원분산분석의 결과 세 하위차원 모두에서 P<.001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DMR-test의 결과 금전절약지향 차원에서는 집단1,3,4,와 집단 2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시간절약지향 차원과 타인지향 차원에서는 하위집단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네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유형화된 네 집단들을 구성하는 지출행동 각 차원의 특성을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각 유형의 명칭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집단별 지출행동 하위차원의 표준화된 요인점수와 집단들의 요인점수의 순위로 파악하였다(표 4-2참조).

집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단 1은 금전절약지향 차원의 경우 양의 값을 갖지만 시간절약지향과 타인지향 차원은 음의 값을 갖으며, 타집단과의 순위를 비교할 때 금전절약지향 차원은 네 집단중 1위이나 시간절약지향과 타인지향 차원은 가장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이 집단의 명칭을 '검약형'이라고 붙이고자 한다.

집단 2는 집단 1과는 대조적으로 우선 금전절약지향의 차원은 음의 값을 갖는데 반해 시간절약지향과 타인지향의 두 차원에서는 양의 값을 가지며, 상대적인 순위에 있어서도 금전절약지향 차원은 네 집단중 4위를 보인 반면 다른 두 하위차원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어 이 집단의 명칭을 '시간·체면 중시형'이라고 붙이고자 한다.

집단 3은 금전절약지향과 시간절약지향의 차원에서 양의 값을 나타내는 반면 타인지향 차원의 경우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집단간 순위에 있어서는 금전절약지향 차원의 경우 1위를, 시간절약지향의 차원은 2위를, 타인지향의 차원에서는 3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이 집단의 명칭은 '검약·시간중시형'으로 명명한다.

집단 4는 금전절약지향 차원은 양의 값을 갖지만 다른 두 하위차원에 있어서는 음의 값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집단간 순위를 보면 금전절약지향의 차원은 1위를, 시간절약지향의 차원은 3위를, 타인지

향의 차원은 2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집단의 명칭을 '검약·체면중시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2〉 각 집단별 지출행동차원의 점수와 일원분산분석결과

집단	1	2	3	4	분산분석
금전절약지향	18.22	11.97	17.84	18.08	F=78.78***
표준화점수	.25	-1.31	.16	.22	
DMR-test	a*	b	a	a	
집단간순위	1	4	1	1	
시간절약지향	5.81	11.61	10.71	8.26	F=288.07***
표준화점수	-.94	1.23	.89	-.02	
DMR-test	d	a	b	c	
집단간순위	4	1	2	3	
타인지향	12.63	23.45	13.72	19.96	F=303.01***
표준화점수	-.89	1.16	-.68	.50	
DMR-test	d	a	c	b	
집단간순위	4	1	3	2	

* DMR-test의 부호는 요인 점수의 크기의 순서에 따라 알파벳을 부여하였음.

*** p < .001

4. 지출행동유형별 특성

분할표분석(및 분산분석)을 토대로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는 지면관계상 제시하지 못하였음).

1) 검약형

검약형은 전체의 30.7%를 차지하는데, 이 집단은 다른 세 집단에 비해 다소 연령이 높고, 주부의 교육수준도 가장 낮은 편으로 평균 고졸 수준을 보인다. 주부의 취업률은 낮으며, 취업을 하였다도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남편의 경우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판매·서비스직의 분포가 가장 많다. 계층귀속의식에 있어서는 '중산층이하'의 비율이 다른 유형보다 현격히 높으며 '중산층'의 비율도 52.5%로 중산층 귀속의식에 대한 우리나라 평균 비율보다도 낮게 나타나 있다.

소득이 네 집단 중 가장 낮고, 경제적 복지감 역시 가장 낮게 나난 반면 주부의 재정관리만족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주택 자가의 비율이 비교적 높아 다른 세 집단에 비해 별로 뒤지지는 않으나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의 비율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용카드의 사용률이 가장 낮아 한달에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금액은 9만원 정도이며, 외식은 1년에 서너번 정도 하는 편이며, 1회 외식으로 지출하는 액수는 4만 4천원 정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구재는 평균 6개 정도 가지고 있으나 외제 가정기기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내구재 보유도가 네 집단 중 가장 떨어진다.

2) 시간·체면중시형

시간·체면중시형은 전체의 14.6%로 구성되었다. 주부의 교육수준은 네 집단 중 가장 높아 대졸 이상이 55%에 이르고 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교육수준도 네 집단 중 가장 높다. 그리고 주부의 취업률이 58% 정도가 되며 특히 전문직의 비율이 34% 정도로 네 집단 중 가장 높다. 남편의 경우도 50%가 전문직과 경영·관리직에 분포되어 있다. 계층귀속의식에 있어서는 총 84% 정도가 중산층 내지 중산층이상에 속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네 유형 중 가장 높은 계층귀속의식을 보이고 있다.

근로소득 평균 370만원 정도로 가장 높고, 특히 이 집단의 반수 정도가 비근로소득원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 280만원 정도이다. 반면에 다른 집단에 비해 부채도 가장 많고, 재정관리만족도는 검약형과는 반대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순자산이 평균 8억 6천만원 정도이며, 경제적 복지감도 가장 높다.

집단의 85% 정도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달에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액수는 81만원으로 나타나 다른 세 집단과 월등히 차이가 있다. 외식빈도는 일주일에 1회이상의 분포가 30% 정도 되며, 1회 외식비가 9만 3천원 정도 된다. 내구재 보유율에서는 8개 이상의 가정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외제 가정기기의 경우 5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18%로 네 집단 중 현격히 높다.

3) 검약·시간중시형

검약·시간중시형은 전체의 14.1%를 점유하고 있는데, 평균연령은 42세 정도로 시간·체면중시형이

나 검약·체면중시형보다 높다. 주부의 교육수준은 대졸(38.6%), 고졸(37.3%)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분포하고 있다. 주부의 취업율은 가장 높아 64%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는데, 전문직 취업비율은 낮고 비전문직 취업비율이 가장 높다. 남편의 직업은 상대적으로 판매·서비스직(18%)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다. 계층귀속의식은 '중산층 이하'의 분포가 검약형 다음으로 많고 '중산층' 및 '중산층이상'의 분포가 65%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근로소득이 평균 280만원 정도로 시간·체면중시형 다음으로 높으나 소득원으로서 비근로소득은 네 집단중 가장 적어 대부분의 가계소득을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대신에 가계부채는 네 집단 중 가장 적다. 가계순자산도 네 집단 중 가장 적다. 반면에 주택 자가율은 66% 정도로 시간·체면중시형보다도 높다. 경제적 복지감은 시간·체면중시형 다음으로 높는데, 가계소득이 두번째로 높은 사실로 보아 이는 높은 경제적 자원의 수준에 기인한 결과라고 하겠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비율이 65.3%로 검약·체면중시형보다도 낮다. 그러나 한달에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액수는 16만원 정도로 검약·체면중시형과 별 차이가 없다. 가족단위의 외식빈도는 한달에 1회 하는 경우가 반수 정도 되며, 30% 정도가 1년에 서너번 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회 외식비는 5만 4천원 정도이다.

4) 검약·체면중시형

검약·체면중시형은 전체의 40.7%를 차지하고 있다. 네 집단중 주부의 평균연령이 가장 낮다. 주부의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46%로 시간·체면중시형 다음으로 높다. 주부의 취업율은 39.7%로 네 집단중 가장 낮으며, 취업주부의 직업지위는 전문직과 비전문직에 있어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남편은 상대적으로 사무직의 비율이 다소 높다. 계층귀속의식은 '중산층'에 64% 정도가 분포되어 있으며 시간·체면중시형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평균 근로소득은 250만원 정도로 검약·시간중시형보다 낮으나, 가계 소득의 원천은 보다 다양해 비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나 금액에 있어 검

약·시간중시형보다 높다. 신용카드 사용율이나 외 제가정기기 보유수에서 검약·시간중시형보다 다소 높다.

5. 지출행동유형의 판별요인

판별분석에 앞서 독립변수 상호간에 다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적용하였다. 독립변수 중 주부의 직업적 지위와 신용카드 사용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전환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주부의 교육수준은 남편의 교육수준과의 상관관계가 .71로 매우 높았으며 또한 주부의 직업적 지위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특히 전문직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계순자산의 경우는 비근로소득과 .50이상의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판별분석에서는 주부의 교육수준과 가계순자산을 제외한 8개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독립변수의 투입방식은 단계별 방식(Wilks방식)²⁾으로 하였다. 그리고 제시되는 판별함수는 제 1 판별함수로 하였다.

다음으로 각 지출행동유형의 분류에 유용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한 결과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별식에 투입된 8개 변수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지출행동유형의 분류에 대한 각 변수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살펴 보면 근로소득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부들의 지출행동이 우선적으로 가족의 주된 경제적 자원인 근로

소득에 의해 구별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또 비교적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비근로소득에 비해 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계층귀속의식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가족이 특정 계층에 귀속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출행동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비록 주택과 같은 가계순자산이 적더라도 중산층 내지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귀속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타인을 의식하여 체면 등을 지출행동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검약·체면중시형의 경우에서 뚜렷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유형은 가계소득은 상대적으로 적는데 비해 계층귀속의식이 높게 나타났고, 체면을 중시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검약·시간중시형의 경우 가계소득은 검약·체면중시형보다 높으나 중산층에 계층귀속이 낮은 편인데, 이 집단은 지출행동에 있어서 체면유지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이 모형의 정준상관계수³⁾는 .392로 나타났으며 카이제곱 검증에 의해 모형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즉 판별식에 의한 집단간의 판별점수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모형을 적용했을 때 전체적으로 각 집단을 올바르게 분류할 분류 정확률(hit ratio)은 47.5%로서 최대우연기준치⁴⁾에 의한 비교기준인 37.5% 보다 분류 정확율을 10% 정도 개선시키고 있으므로 본 모형의 예측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2) 판별함수 도출방식에는 무의미한 독립변수까지 모두 투입하는 방식과 유의한 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단계별 방식이 있다. 단계별 방식으로 RAO, MAHAL, WILKS방식 등이 있는데, WILKS방식의 경우(집단내 분산 / 총분산)으로 나타내지는 WILKS'lamda는 $\left[X = \frac{\text{within Group SS}}{\text{Total sum of Square}} \right]$ 를 최소화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변수를 단계별로 투입하는 방식이다.

3) 정준상관계수(canonical correlation)는 판별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판별점수의 분산을 총분산으로 나누고 제곱근한 것으로 판별식의 설명력을 의미한다.

4) 판별분석에서 가정된 모형이 어느정도 판별력을 갖는 것인지를 평가해 보는 기준은 Cmax(최대우연기준치)와 Cproportional(비율우연기준치)의 두가지 방식이 있다.

최대우연기준치의 경우는 어느 한 쪽으로 모두 분류시에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확률을 비교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비율우연기준치는 각 집단의 비를 제공하여 더한 확률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식은 다음과 같다.

$$C_{max} = \frac{\text{최대빈도집단의 표본수}}{\text{전체표본수}} \quad C_{proportional} = \sqrt{\frac{1}{n-1} \left\{ \frac{n \text{ 집단 } i \text{ 의 빈도수}}{\text{전체 표본수}} \right\}}$$

〈표 4-3〉 지출행동유형의 판별분석 결과

변수	판별계수	표준화된 판별계수	비표준화된 판별계수
주부의 연령		-.281	-.037
남편의 교육수준		.294	.235
근로소득		.472	.003
비근로소득		.392	.001
전문직		.238	.600
비전문직		.125	.282
계층귀속의식		.409	.681
내외통제성 (상수)		-.262	-.064
			-.295
정준상관계수		.392	
$\chi^2=130.033$		sig. level .0000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본 연구의 우선적인 과제는 지출행동의 세 차원을 토대로 지출행동을 유형화시키는 것이었는데 네 개의 지출행동유형이 명료화됨으로써 이 세 차원이 지출행동을 구성하는 중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지출행동유형별 특성을 보면 사회계층 또는 사회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소득, 교육수준, 직업적 지위, 계층귀속의식 변수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지출행동유형이 곧 사회계층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한 표현임을 의미한다.

셋째, 각 유형은 지출행동을 통해 요구와 자원을 중재함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갈등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검약형은 자원제약의 문제를 경험할 것이며, 시간·체면중시형은 사회적으로 과소비를 유도하고 사회적 위화감을 증폭시키는데 문제의 초점이 모아지며, 재정관리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에 대한 자기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검약·시간중시형과 검약·체면중시형은 유형 자체에 내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도시가계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가족의 다양한 요구 사이에서 어떤 지출행동유형에 속하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재정관리만족도와 경제적 복지감이 유형에 따라 정반대로 인식된다는 사실을 통해 경제적 자원의 관리과정과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 자체에 대한 태도가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지출행동유형별로 차별화된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이나 정책대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나라 주부는 시간절약지향 수준이 특히 낮은데, 이는 취업주부가 시간제약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을 감수함으로써 이중부담을 지고 있는 현 실태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가사노동의 광범위한 공적 대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체, 또는 기업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해 주어야 할 것과 동시에 고정화된 성역할의식의 전환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출행동 차원을 금전절약지향, 시간절약지향, 타인지향으로 구성하였는데, 점차 다양해지는 지출행동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세 차원 외에 새로운 차원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문옥표 외4(1992). 도시중산층의 생활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7-104.
- 2) 백옥인 역(1992). 생활양식론 -현대자본주의의 생산·노동·생활과정 분석-민글.
- 3) 손상희(1993). 가계소비패턴의 구조. 소비자학연구. 4(2). 51-72.
- 4) 연하청 외5(1995). 중산층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5) 이기영(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이용학(1985). 우리나라 취업주부의 소비자 행동.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 제미경(1994). 취업부의 시간절약재해 및 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8) 통계청(1993). 한국통계월보. 3월호.
- 9) 홍두승(1992). 사회조사분석. 서울 : 다산출판사.
- 10) Maslow, A.H.(1970). 인간의 동기와 성격. 조대봉 역(1992). 교육과학사.
- 11) Riesman, D. 고독한 군중. 김태화 역(1984). 정암.
- 12) Veblen(1989). 유한계급론. 최광열 역(1983). 양영각.
- 13) Becker, G.S.(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5: 493-517.
- 14) Bellante, D. & Foster, A.C.(1984). Working Wives and Expenditure on Servi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 : 700-707.
- 15) MacCall, S.H.(1977). Meet the Work Wife. Journal of Marketing. July :55-65.
- 16) Nickols, S.Y., Metzen, E.J. & Fox K.D.(1983). Buy Time and Saving Tim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 407-448.
- 17) Sumarwan, U. & Hira, T.K.(1993). The Effects of Perceived Income Adequacy on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of Rural Household.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 343-363.
- 18) Varco, K.O.(1990). Financial Events and Coping Strategies of Household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4 : 57-69.
- 19) Yang, Se-Jeong(1991). The Effect of Wife's Employment on Family Expenditure : Gross Effects, Work-Related Effects, and Net Income Effect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